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70 YEARS 1953-2023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아프리카 선교 허브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5월 29일 봉헌예배, 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

광림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 곳곳에 미션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봉헌하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15일 광림교회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설현장에서 기공예배를 드렸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중남부 내륙 국가로 주변 8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앞으로 중부 아프리카의 선교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순차적으로 세워진다. 이번에 1차로 다목적 교육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사택 등 3개동의 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토목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5월 29일(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봉헌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채플, 의료센터, 기숙사 등도 건축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선교 통한 목회자 양성

잠비아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단과 토속신앙이 혼합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올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잠비아에 교육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 협력 선교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센터에서는 잠비아와 주변 국가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웨슬리신학교에서 교수를 파송해 신학 교육을, 영국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은 선교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의 목회자와 교수도 참여해 영성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생활 인식 개선과 직업 교육

신학 교육뿐 아니라 미션센터의 주요 사역은 생활 인식 개선과 에이즈 치료, 직업 교육이다. 이를 위해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 의료 전문 선교사를 파송해 현지의 의료 인식도 점차 바뀌나갈 것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조혼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에이즈 치료를 위한 의식 개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잠비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션센터 주변은 코카콜라 대형 공장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지역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건축중인 동탄광림교회

다목적 교육센터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는 주변국 선교사들의 교육과 세미나, 컨퍼런스 및 교류와 연합, 쉼과 안식, 친교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선교 방향은 교파를 초월해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광림의 선교행진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4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열리는 선교협력회의에 참석해 잠비아 미션센터를 소개하고 인접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동북아 선교를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광림미션센터의 봉헌도 앞두고 있으며, 광림교회 7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광림교회도 공사가 60%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믿음으로 승리하라
3 광림 스토리 튀르키예 참전용사 초청 위로회
4 하나님을 만나다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 간증
5 믿음의 현장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7 다음세대 광림교회 청년부 LBS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 역경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나 시련, 역경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중에도 인내합니다. 더 나아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봅시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켰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이 추방명령을 받아 모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자란 중국인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기에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참된 신앙은 도리어 역경 중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욥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족과 재산을 잃고 역경 속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역경을 뒤집어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과 딸들도 모두 죽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후 그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고 친한 친구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난을 이겨내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순금 같이 단련되어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3:10~17; 42:1~6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첫째, 역경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그저 지내는 사람은 아무 발전도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으로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배후에는 인간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못은 힘껏 박으면 박을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공은 힘껏 내려칠수록 더 높이 뜁니다. 신앙의 힘을 가진 우리들도 고통을 당할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여름에 할머니들이 호박꽃을 긴 작대기로 자꾸 때리며 다닙니다. 이유는 매를 많이 맞은 꽃들은 매 맞을 때 화분이 많이 날아가서 큰 호박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시련과 역경의 채찍을 많이 맞은 사람이 성장한 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시련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업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둘째, 역경은 곧 하나님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C.G.Jung)은 많은 정신질환자들과 상담한 가운데 "35세 이상 된 환자의 마지막 단계에는 종교적인 문제에 인생관이 귀착되고 그들의 질병은 종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경 앞에서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다윗도 모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평탄한 인생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용기입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동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기가 믿음에서 온다는 데 있습니다.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믿음은 삶에 용기를 주고 용기는 삶에 변화를 줍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바다를 기쁘고 당당하게 항해하도록 삶에 힘을 줍니다.

셋째, 역경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욥은 고통을 당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탄은 욥이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실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소유가 모두 없어져도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욥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과 딸을 주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없어진 재산의 갑절이 다시 생겼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욥 42:5)라고 감사해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생겨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참전용사 초청 위로회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가져

3월 10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광림교회가 주최한 튀르키예 참전용사 초청 위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2월 6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새벽 발생한 강진으로 취소 되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구호팀과 함께 방문한 김정석 담임목사 일행은 안타키야(안디옥) 방문 후 이스탄불에 들려 각 지역으로 피신한 참전용사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참전용사회장과 연락이 되었고, 대표로 참전용사회장과 참전용사 한 가족을 이스탄불의 한 호텔로 초청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타키야 지역에는 참전용사가 20여 명 생존해 있었으나 거동이 가능한 분은 3명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 몇 명은 생사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거동이 힘든 분들이 많았기에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생존자는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참전용사 회장인 메흐멧 라이즈 바크르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자신의 직계 가족만도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피를 나눈 형제 나라인 한국 국민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참전용사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태극기와 튀르키예 국기가 새겨진 시계를 선물했다. 참전용사 회장은 2월 6일 예정되었던 행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감사패를 지진 현장에서 찾아 전달했다.

참전용사의 가족인 조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어린 시절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다며 한국에 대해 늘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특별히 본인의 가족이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의 광림교회가 늘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림교회는 지난 2010년에도 튀르키예를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 위로회를 가졌으며, 그 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2023년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개최

개체 선교회장들 직무교육 실시

<2023년 남선교회 리더십 세미나 및 직무교육>이 3월 12일 주일 3부예배 후 남선교회총연합회 임원 및 연합회장, 교구장, 개체 선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1부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에는 3대 기능이 있는데 복음전파의 기능, 봉사의 기능, 친교의 기능이다. 그리고 집사나 권사 등 직분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삶의 모습은 먼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며 귀한 일꾼으로서 단정하고 고상해야 한다. 또한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은혜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깨끗한 양심 위에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절제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을 스데반, 디모데, 바울, 웨슬레 및 교구회장 등 총 5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각각의 센터장들이 개체 선교회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장들은 남선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하고, 개체 선교회장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

또한 선교회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소소한 것들, 모임광고와 장소에서부터 말씀인도와 애찬에 관한 것들, 그리고 회원에 대한 심방요령이나 경조사 발생시 대처, 새신자를 초대하기 위한 노력 등 개체선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을 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박기연 장로는 "일반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신입사원이 해야할 일들을 가르쳐 준다. 교회에서도 개체선교회장이나 교구장을 여러차례 한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직분을 맡은 분들도 많다. 이들에게 먼저 크리스천 리더로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실질적으로 선교회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직무교육을 갖게 됐다. 개체선교회가 활성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선교회가 발전하고 나아가 광림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프레시온 전도학교
3월 12일, 장천홀에서 이성미 집사 초청 간증 집회를 열었다.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이 구호활동에 감사하며 직접 만들어 선물한 모자이크 공예품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매주 화요일 11시,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3/14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3/15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원 개강예배
3/16	중보기도세미나
3/17	아펜젤러선교센터 운영위원회
3/20~25	미국 ACSI(기독교사학미션), Focus on the family, New Life Church 등 방문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 간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

2006년, 월드컵 중계를 보고 있다가 골을 넣은 선수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저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하는 동작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봐야 했다. 이 과정은 여러 해를 거쳐 계속되었다.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성경을 읽다 보니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동네의 유일한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한 나의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을 풀 수 있었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며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체험했고, 나도 크리스천이 되어 안디옥 개신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월드컵 중계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골 세리머니를 통해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데, 각자에게 알맞은 모습과 방법과 때를 주시는 것 같다. 지금도 축구 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세상의 누군가는 또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흐뭇해진다.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청년 C

교회학교 근속교사 ②
소년 2부

아이들과 함께한 40년, 이효영 권사

김선도 감독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올해로 근속 교사 40년을 맞은 이효영 권사(소년 2부)는 민방위훈련 2기로 광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감독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신앙생활을 했고, 배운 가르침 그대로 지난 40년간 병가로 인한 한 번의 결석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빠짐없이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효영 권사는 김선도 감독님의 첫 설교를 듣고 가슴에 확 와닿았고,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이 권사는 "봉사든, 신앙생활이든 적당히 하지 마라. 열심을 대신할 건 없다"고 하신 김선도 감독님의 말씀과, 처음 듣는 트리니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이게 곧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효영 권사가 교회학교 부장을 할 때 매주 부장회의 때마다 참석하신 감독님은 "교사는 아이들 앞에 서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을 공부하고 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교회학교에서 지난 40년간 근속하면서 이효영 권사는 어떤 자리에 있건 감독님의 말씀을 복기하며 아이들 앞에 선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정말 생명을 걸었다고 말하며 영적, 질적, 양적으로 교회학교의 부흥 성장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했다.

75세에 미가엘성가대는 은퇴했지만, 교회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로 소년 2부를 섬기고 있다.

이 권사의 주일 일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에 교회 도착해 기도하고, 7시 예배를 드린다. 감독님의 가르침대로 근속 40년간 1부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난다.
40주년 근속패를 받는 임명 예배 때 "권사님, 10년 더 하세요"라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다.

이어서 이효영 권사는 "90세까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감독님과 담임목사님께 배운 가르침과 은혜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롭게 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매주 교회학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혜선 기자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④
예배위원회

경건한 예배를 위한 안내자, 양헌웅 권사

예배위원을 하게 된 계기

저희 27교구 남성속회 속장이며 예배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정하원 장로님의 권유로 2018년 2월부터 예배위원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봉사를 선택했으나 정 장로님의 권유가 저에게 헌신의 기쁨과 신앙의 새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배위원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 의전, 방역, 응급 환우조치, 성도들의 소지품 도난 예방 조치, 교회 소식지 배포, 주보 안내 등 예배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 원활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을 하면서 받은 은혜는

주일에는 1부 봉사를 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위원장님 그리고 예배위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믿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 중에 너희가 한 사람에게라도 한 것이면 나를 위해 한 것이니라"(마 25:40)라는 말씀과 같이 예배위원회 봉사로 인해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두원 장로(예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배위원은 교회의 얼굴이며 항상 바르고, 공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성전에서 부족함 없는 예배위원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백명순 기자

성극위원회
파워크리스찬

〈더 드리머〉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극

2023년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및 파워크리스찬 40주년 기념 정기공연 뮤지컬 〈THE DREAMER 더 드리머 : 잇는 자들〉이 4월 21일(금)~23일(주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7층 BBCH홀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광림교회 성극위원회(위원장 박영준 장로)는 1983년 광림교회 박관순 사모와 인천 학익교회 원로 목사인 조중기 목사가 만든 연극부를 시작으로 탄생하였다. '파워크리스찬'은 1998년 10월 광림교회 창립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올린 창작 성극 〈닻을 올려라〉에 동참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소망으로 시작된 이름이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성극 공연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공연을 4년 만에 다시 뮤지컬 〈더 드리머〉로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더 드리머〉의 '드리머'는 그분과 사람들을 잇는 자들이다. 그분이 전할 대상과 메시지를 알려주면, 드리머들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리머들은 그분으로부터 사람들의 소원을 들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꿈으로 통하는 길까지 막혀버린다. 결국 드리머들은 꿈이 아닌 세상에 직접 내려가기로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찾는 이들의 가족, 친구인 척 연기를 하며 거짓으로 메시지를 지어낸다. 과연 드리머들은 잇는 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성극위원회는 BBCH 아트센터와 연계하여 광림교회만의 문화 콘텐츠, 극본, 음악을 가지고 극을 올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와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소망한다. 작년 11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많은 청년이 배우와 무대예술, 음향, 조명, 의상, 분장 등 스태프로 활동하며 이번 공연을 준비하였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와 단절로 힘든 시간을 지나온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뮤지컬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드리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극 〈더 드리머〉 공연에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눈이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

도신우 목사 (야마가타 광림교회)

우리는 보통 눈 내리는 것이 다른 자연 현상에 비해 꽤나 낭만적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할 이가 많다.
그러나 군필자라면 다들 안다. 눈이 때로는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이곳 일본의 야마가타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은 지역이다. 지난 성탄절에는 무릎 위까지 쌓인 눈으로 인해 예배 직전까지 눈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3월 중반에도 함박눈이 내렸고, 겨울왕국의 엘사가 되고 싶다던 딸도 이제는 겨울 눈이 지겹다고 한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 하나는 주차장이다. 교회 바로 옆이 주차장인데, 스무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이 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약한 시골동네이기에 자가용은 이곳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필수품이다. 그래서 교회 오려면 다들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기에 주차장이 넓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된다. 그런데 이 장점이 때로는 어려움이 될 때가 있다. 바로 겨울이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기에 제설로 한 겨울에도 셔츠 카라가 땀으로 축축히 젖을 정도이다. 눈이 원망스러워지기는 군대 이후 처음이다.

눈(雪)이 눈(目)앞을 가리던 어느 날, 눈삽을 들고 제설을 하는데 다시 눈이 쌓인 것을 보고 힘이 빠졌을 때다. '제설차가 한 번만 지나가 주면 좋겠는데, 예배 전에는 눈이 멈추면 좋겠는데.' 이러한 불만 불평의 마음들이 가득차갈 무렵, 문득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교회까지 오기 위해 자신들의 집 앞마당을 쓸고, 길을 만들고, 먼 길을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의 수고가 떠올랐다. 불만으로 가득찬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불만의 마음들을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다.

이제는 눈이 내리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험한 눈길을 뚫고 오는 성도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 눈을 뚫고 성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성도들과 이 마음을 나누었더니 제설했던 주차공간이 가득차는 뿌듯함도 누렸다. 눈 내리면 성도들은 반대로 주차장의 눈을 치우느라 애쓰는 목사를 생각했다고 말한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눈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음에 참 감사하다. 그나저나 올해는 눈이 적게 왔다고 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광림교회 중보기도자 임명예배

중보기도위원회(위원장 김도옥 장로) 주관으로 2023년 광림교회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3월 16일(목) 오전 10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이번 예배에서는 "중보기도의 응답을 이루라"(눅 11:5~13)는 담임목사의 말씀 후 중보기도자 330명에 대한 임명식과 2022년 중보기도 개근자 59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특별히 9년간 철야기도를 이어 온 임옥주 권사는 모범위원상을, 31년간 철야기도에 임하고 있는 김경애 권사는 공로패를 받았다.
330여 명의 광림교회 중보기도팀은 본당 1~7조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기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한다.
중보기도팀은 하루 한 조씩 시간별로 1~4명이 팀을 이루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30분 이상 기도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전도사와 조장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철야를 한다. 주일에는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김정석 담임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중보기도자란 영적 용사(spiritual warrior)이며,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보기도팀은 기도로 24시간 이 교회를 받치고 있으며 여러분의 어깨에 교회를 얹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길 간구했다.

중보기도를 원하는 성도는 본당 1층 중보기도실 앞에 있는 중보기도 요청서에 기도 제목을 적은 후 중보기도 요청함에 넣으면 중보기도자들이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중보기도 요청 및 문의>
TEL : 02-2056-5639

박희윤 기자

광림남교회

AWANA 그랑프리로 부모님과 함께

광림남교회 AWANA는 지난 2월 26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1층 예수와에서 AWANA 그랑프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청장년부와 연계하여 예배 활성화와 부모초청과 어와나 개강 모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총 34명이 도전했고 49명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준비 기간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성도님들이 함께 디자인 부분 투표에 참여하며 교회학교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었고 교회학교 활동을 위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스피드 경쟁' 부분에서는 레일을 따라 4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발하여 빠르게 결승점에 도착하는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응원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많은 학부모님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이번 AWANA 그랑프리를 통해서 자녀와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만드는 활동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자녀가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힘이 났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한 어머니는 "아이 아빠가 아들의 성화에 처음 교회 초청되어 온 계기가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매사에 집중력이 떨어지던 아이였는데 한 가지에 관심과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23명의 어린이가 3월 19일 어와나 개강예배를 통해서 등록하여 예배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광림남교회 교회학교 AWANA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과 믿음의 훈련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3월 12일 주일, 3부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8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황은우, (부)황영재, (모)박현경

김채아, (부)김성현, (모)전지현

정온리, (부)정지웅, (모)인성은

장우주, (부)장지욱, (모)이도경

강로아, (부)강승원, (모)강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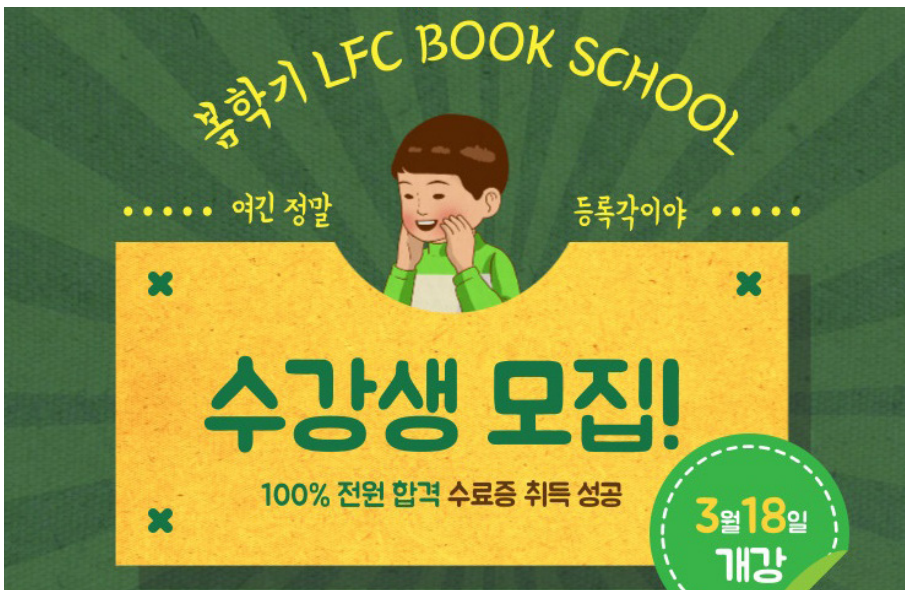
김리언, (부)김동환, (모)김경욱

황규언, (부)황지현, (모)홍정화

안시현, (부)안신범, (모)윤상은

광림교회 청년부 LBS 봄학기 개강

바른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추구



광림교회 청년부는 3월 18일(토)부터 5월 13일(토)까지 2023년 봄학기 LBS(LFC Book School)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23년도 봄학기 LBS에는 6개의 다양한 강의가 열려, 청년들마다 개인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 모여 LBS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눈 후, 6개의 강의실로 흩어져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성경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 세미나가 있으며,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오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우불치'(우울함과 불안함을 치료하기)세미나와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기도의 삶' 세미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균형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라이프코칭' 세미나가 있습니다.

LBS에 참여하는 김남주 자매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의문과 더 깊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차에 기도의 삶 강의가 열린다는 것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기도의 삶 강의를 통해 기도에 대해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 기대가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LBS에 참여하는 이소연 자매는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LBS를 신청하게 되었고 LBS 찬양팀의 싱어로 함께 하자는 권면까지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LBS를 통해 나와 더 가까이 지내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번 LBS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2023년 봄학기 LBS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앎(지)과 감동(정), 실천(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봄학기 LBS 강의를 통해 광림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성장과 섬김의 나눔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청장년1부

'올바른 청지기 재정관리'

일과 영성 세미나 마지막 특강

'돈은 하나님의 관심사다'라는 말에 광림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성도라면 마땅히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분이 제법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돈에 대해,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돈에 대한 자세'에 대해 관심이 무척 많으시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아시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눅 12:30)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돈, 돈'하면서 살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갑절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눅 19:9)고 기뻐하셨다. 이 정도면 돈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맞는 것 같다.
청장년1부에서는 지난 3개월간 총 6번의 '돈'을 주제로 한 '일과 영성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7번째 순서로 '올바른 청지기 재정관리' 특강을 지난 3월 19일에 주최했다.
S&G(Save, Give, Shalom, Grace) 자산관리 연구소 정건주 소장은 청지기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임을 설명하며, 우리 성도들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각하고 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 재정관을 갖춰야 됨을 알려 주었다.
정 소장은 30년간 재정에 대한 특강과 컨설팅을 해 오면서 결국 돈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면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험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평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돈을 잘 다스리면 유용하지만 돈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면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철학자 베이컨은 돈이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라고 일찍이 알려 주었다. 사도바울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였다. 모두 돈의 힘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마 6:24)라고 말씀하시며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도구로써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잘 알고 종처럼 부릴 정도로 '돈 마스터'가 되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신앙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또한 이번 기회에 청지기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돈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한다.

편기형 부장(청장년1부)

신앙 간증

탕자이기에 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청년선교구 새신자 담당 5교구 지구장 정우석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렵진 않았지만 늘 방황하는 탕자였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재미있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심이 없던 저는 한없이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깊은 방황의 길로 빠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즐거웠고 뭐라도 된 것만 같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젖어 들면 젖어 들수록 항상 불안했고 외로웠고 겉으로는 행복했지만 속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날들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광림교회를 다니던 청년 선배를 통해 청년부 여름 국내선교에 초청을 받았고 평소 같았다면 거절했겠지만 왠일인지 선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국내선교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의 길을 걷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잘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며 위로를 주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저는 받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광림교회에 등록하여 청년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르신 소명 그대로 새가족 담당 교구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려 용기를 내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떠나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돌아오라고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그러니 당신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정우석 지구장(청년부)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7

예수의 말씀과 비유 마 21:23

예수가 성전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예수는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겼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예수의 물음에 당황한 그들은 뒤로 물러 나와 의논했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드니 그들이 난처해진다. 그들이 예수에게 대답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 우리는 모르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 **혼인 잔치의 비유_**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초대(말씀)에 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요하임 우테웰의 작품**

그러고 나서 예수는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고 말했다. 큰 아들은 '싫습니다'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꿔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대답은 '그럼요,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에게 예수가 물었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었을 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을 믿었다. 너희는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고서도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이어서 예수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어떤 왕이 왕자의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신하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살진 송아지를 잡는 등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혼인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손님들은 신하의 말을 무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김매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를 붙잡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이에 격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은 다시 신하들에 명령을 내렸다.
'혼인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들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바리새인_**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에 예수는 위선적인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다. **제임스 티소의 작품**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신하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왔다. 잔칫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고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때 왕이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물었다.
'자네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비유를 마친 예수는 이어서 말하였다. "이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나 초대를 받았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죄를 지은 채 천국 잔치를 즐길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